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auri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수시 과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은희
수탁 과제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강현미
	산림복지단지 조성 모델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이상민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염철호
	건축행정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개선 연구	조상규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	심경미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여경

수시과제

❶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2019년 6월 기준 세움터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동주택 43만 4,281동 중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31만 7,000동으로 전체의 약 63%이고,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도 18만 7,000동으로 43%가 넘는 등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의 증가는 국민의 주거복지, 안전, 지역쇠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택 성능 및 주거가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구감소, 노인인구 및 1·2인가구의 증가, 저성장경제의 지속에 따른 저비용·고효율 주택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 아울러 리모델링과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 등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2014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되었으나 노후화방지 및 기능향상이라는 ‘리모델링’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규정은 미흡하다. 실제로 사업비가 높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보다 공동주택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범위를 정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유지관리형 리모델링 사업의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아직까지 주택시장에서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 리모델링 산업(설계 등 서비스업 및 시공·제조업 등)의 성장은 더디며, 사업 후 주택의 성능과 거주가치, 실익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여 입주자의 사업추진 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공동주택 노후화의 문제점과 리모델링의 필요성 그리고 제도적 미비점 등을 배경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와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주

택의 주요 성능기준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수료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결론에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주택법」 등 현행법의 리모델링 규정 고도화와 리모델링 개별법 제정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은희

수탁과제

①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의 보급·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농업인구 감소, 농지 감소,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확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시농업과 스마트팜(Smart Farm)이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농업은 농산물 생산지를 도시 내로 끌어 들여 기존 원거리 공급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스마트팜은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최적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조절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4차 산업 연계 농업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도시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되고 있다. 그중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은 도시농업과 스마트팜의 장점을 건축물의 물리적 공간과 결합한 개념이다. 건축물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며,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생산지와 판매지가 도시 내 위치한다는 점에서 물류 이동거리를 최소화해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고,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활용하며, 대기질 조절과 탄소배출량 저감 효과를 갖는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첫째,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의 국내 적용을 위해 건

축물 활용 스마트팜의 활용 범위와 개념을 설정하였다. 외국의 경우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은 건축물 옥상과 내부 공간, 외벽 혹은 스마트팜 전용 건축물을 활용하고 있다. 이중 어떤 형태가 국내 실정에 맞는지, 농산물 소비자는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등 수요자 기반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이 설치되기 위해 법적 측면에서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예상 문제를 검토하며, 법적·정책적 지원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물 활용 스마트팜의 보급·확산을 위한 개념적·법적 기초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강현미

② 산림복지단지 조성 모델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201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및 운영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가시적 추진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이 연구는 단순히 다수의 산림복지시설로 조성되는 산림복지단지의 개념에서 벗어나 장기체류 및 거주할 수 있는 산림복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 기존 산림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된 개념을 정립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 모델 개발과 조성·운영 전략을 마련하며 ▲향후 추진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 도입 이후 그간 실제 추진되지 못하였던 산림복지단지 조성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산림복지정책 추진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 산림복지시설의 한계를 개선하여 산림복지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수혜 대상은 물론이고 이용만족도를 향상시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발생하게 될 산림복지서비스 수요 예측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 조성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따른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민

3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

지난 2018년 12월 건축기획 내실화를 중심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었다. 2014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으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설계공모 의무화 등이 적용되었으나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단계 내실화를 위한 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발주 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건축기획’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건축기획을 수행하고,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개정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한 시행령과 행정규칙 등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분석 및 방안 제시를 진행하고,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개정소요를 발굴·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시행령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사항과 운영, 건축기획 업무 시 추가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승인에 대한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건축기획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등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필요한 행정규칙 등을 살피며, 추가적으로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단계 내실화를 위한 체계 구축과 함께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염철호

4 건축행정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체계 개선 연구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을 선두로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과 같은 건축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온라인 건축행정을 실현하였다. 또한 건축물대장으로 대표되는 건축 관련 원천정보를 생산하여 안전취약 건축물 대상을 선정하거나 건설경기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건축정보시스템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세움터의 경우 건축 관련 민원이나 건축물 대장 발급 등을 처리하고 있고, 건물에너지 통합시스템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는 등 시스템별로 서비스가 분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고, 각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각 시스템에서 일부 정보의 중복 구축, 데이터 오류 등으로 인해 건축정보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국민 정부서비스 창구의 통합운영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 유지점검 등 건축현장의 업무나 재난 사전대응 등과 같은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 지원 기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한 건축행정 정보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축행정 관련 정보체계와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각 시스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 건축과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연계 활용되는 정보의 품질을 관리하며, 건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건축물 현황관리와 정책 의사결정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상규

5 행복도시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 개발

행복도시 착공 이후 공동주택은 계획대비 약 55.7%가 준공 또는 공사 중이지만, 2019년 6월 말 기준 단독주택은 약 16%에 불과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행복청은 단독주택 특화사업 추진 등 단독주택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존에 분양된 획지형 단독주택 용지의 건축조성 현황은 매우 저조하다.

이에 이 연구는 행복도시 획지형 단독주택 조성 활성화의 일환으로, 행복도시 단독주택 건립 부진 사유 및 실제 건축주들의 건축 조성 단계별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단독주택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단독주택 예비건축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행복도시 획지형 단독주택 건립 현황을 분석하고, 분포도를 작성하였으며, 행복도시 단독주택 건립 부진 사유를 정리하였다. 또 현실적인 단독주택 정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행복도시 내 단독주택을 직접 짓고 거주하고 있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일반 설문조사 및 집단 면담조사(FGI)를 실시하였으며, 행복도시 내 단독주택 설계 경험이 있는 건축사 면담조사도 하였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 내 획지형 단독주택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제시를 위해 분쟁해결 측면, 건설비 지원정책 측면, 유지·관리 제도 측면에서 국내외 사례조사를 벌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단독주택 건축과정, 유지·관리, 지원정책 등 행복도시 단독주택 조성에 대한 정보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공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선 ▲단독주택 아카데미 운영 ▲단독주택 표준화·모듈화 공급방안 마련 등으로 행복도시 단독주택 조성 활성화의 기틀을 놓고자 한다.

심경미

6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주거생활의 질서 확립을 위해 사용검사 이후 변경되는 행위를 제한 관리하고자 1978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2003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015년 8월 11일에는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35조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는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을 일부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정도로 개선되어 왔다. 아울러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에 대한 수요나 제도개선 요구가 많지 않다 보니 관련 연구도 진행된 바가 없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가 대두되고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공동주택 내 용도변경, 대수선, 증축, 철거 등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듯 최근 2년간 일반 국민들과 지자체 행정담당자들의 민원이 기존과 다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기준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동의요건 등 허가 신고 기준의 일관성 부재 ▲새롭게 발생하는 행위에 대한 적용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현안을 진단하고 행위허가 신고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에 대한 해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반 국민들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운영과정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여경

2019

세종학 포럼

‘새로운 실험의
무대 세종시,
삶의 장소로서
미래를 그리다’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세종특별자치시는 10월 8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중연회장장에서 2019 세종학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만들어진 도시’ 세종시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실험의 무대 세종시, 삶의 장소로서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기조연설을 맡은 세계적 조경가 아드리안 헤저(Adriaan Geuze, West 8 대표)는 West 8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얻은 영감과 교훈을 공유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세종시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있어 조경디자인과 도시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발표 및 토론 세션에서는 제1부 ‘세종학 추진 방향 모색’에서 김학훈 교수(청주대학교)와 윤형권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 제2부 ‘계획의 실험무대 세종시의 도시공간과 일상생활’에서 배정환 교수(서울대학교)와 한서영 교수(홍익대학교), 이종민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종합 토론에서는 조항만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성표 실장(대전세종연구원), 김영민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오광석 교수(한국해양대학교)가 발표자들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실험적 계획도시인 세종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세종시는 2019년 1월 ‘세종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도시 단위의 사회 변화와 다층적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도시가 처해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산업으로 본 한옥'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11일(금) 경주화백 컨벤션센터에서 2019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을 개최하였다.

국가한옥센터는 2011년부터 한옥에 관심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포럼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9회째를 맞아 '산업으로 본 한옥'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였다.

2000년대 후반 우리나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속에 한옥이 재조명되면서 한옥의 우수성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기존 한옥을 보전 및 활용하고 새로운 한옥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한옥 산업화'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한옥 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에 김용미 대표이사(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의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김상협 연구교수(명지대학교)가 한옥의 우수성과 현대 건축물에 요구되는 접점을 모색하는 '한옥 기술개발의 현황과

방향'을 발표하였다. 이어 이한식 대표(주)경민산업)는 '목조건축의 산업화 동향과 발전방안'을 통해 한옥의 주요 구조인 목구조의 성능 강화와 활용성을 높이는 목재개발 현황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종민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한옥 산업화 정책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한옥이 하나의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토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 추진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전봉희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석목 대표(주)고진티앤시), 김현중 회장(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윤대길 소장(조선건축사사무소), 이경석 과장(국토교통부), 정연상 교수(안동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해 한옥 산업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제5·6회 마을재생 세미나 ‘DIT 마을재생’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24일(목)과 25일(금) 양일간 군산과 순천에서 제5·6회 마을재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DIT 마을재생’을 주제로 윤주선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DIT 마을재생이 필요한 이유’와 코노나오 대표(츠미키 설계시공사)의 ‘DIT 마을재생 이치가와 사례’ 발표를 통해 운영자가 원하는 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직접 리모델링 또는 리노베이션하는 DIT(Do It Together) 기법을 도시재생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소개하였다.

24일에는 군산시 도시재생과, SK E&S, 언더독스, 로컬라이즈 군산 참여팀 등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로 예정된 DIT 워크숍 대상자인 슈퍼워커 베이스에서 제5회 마을재생 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군산시 민·관 협력 프로젝트인 로컬라이즈 군산에 DIT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25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9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에서 전문가 세션으로 제6회 마을재생 세미나가 전국 도시재생뉴딜 사업담당 공무원, 총괄코디네이터, 전문가,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순천생활문화센터에서 펼쳐졌다.

이처럼 도시 내 유휴 시설이나 노후 건축물 등을 재조성하여 혁신거점으로 재생 및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리모델링, 리노베이션이 도시재생의 핵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DIT는 초기 투입비용이 절감되고 운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소규모 도시재생을 위한 실행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문화적·정책적 이점을 지닌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DIT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재생 현장의 시사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9 국제 공공건축 네트워크 연례회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22일(화)부터 26일(토)까지 서울 조선호텔과 세종시 등지에서 2019 국제 공공건축 네트워크 연례회의(2019 TWN Annual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국제 공공건축 네트워크(The Workplace Network, TWN)는 공공건축 및 자산관리를 위한 협의체로, 네덜란드·노르웨이·캐나다·한국 등 20여 회원국들이 매년 콘퍼런스를 통해 보다 나은 공공건축을 위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아시아 국가 최초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개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올해의 주제는 '녹색건축을 통한 에너지 절감(Energy Saving with the Green Building)'과 'IT와 스마트시티(IT+Smart City)로, 회원국의 사례 발표와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각 주제별로 국내 현황을 소개하고 대표 사례를 직접 답사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녹색건축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내 경쟁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건축 및 자산관리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for Public Building and Public Asset Management)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캐나다·에스토니아·네덜란드·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건축 전담기관의 기관장 및 관계자와 함께 우리나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건축 관련 관계자들이 자리해 국가별 국가청사 조성체계와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보다 나은 생활공간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세계 각국의 공공건축 및 자산관리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제적 공공건축 조성관리의 발전적 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다.

2019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1월 8일(금) 행정안전부·한국교통연구원·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보행환경 정책과 개선사례를 공유하고 바람직한 보행환경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관련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민간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보행자연맹, 네덜란드 NHL 응용과학대학 소속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먼저 기조연설에 나선 지르트 판 베그(Geert van Waeg)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고, 보행 중심 도시를 위한 안전한 이동성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후 ‘보행자를 위한 새로운 공간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오성훈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보행정책을 넘어 도시정책으로’를 통해 국내 보행정책의 현재와 한계를

설명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시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테르 드 한(Pieter de Haan) 상임연구원(NHL 응용과학대학)은 ‘공공공간의 새로운 이용방식’에 대해 보차공존도로의 개념과 사례를 소개하고 보행자를 위한 새로운 이용방식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보행사고 유형과 개선대책’을 주제로, 심재익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이 ‘보행사고의 복합요인과 맞춤형 안전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석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석)가 ‘한국의 차대 보행자 사고 관련 판결례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였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하동익 교수(서울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6명의 보행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위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3차 AURI 경관포럼 ‘좋은 경관이란 무엇인가?’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1월 15일(금) 서울 공공그라운드에서 제3차 AURI 경관포럼을 개최하였다.

올해 설립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센터는 경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고, 좋은 경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해 왔다.

이번 포럼은 ‘좋은 경관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주제로 삼아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추진해 온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의 통합마스터플랜을 되짚어 보고자 마련되었다. 아울러 지역의 통합적 경관형성을 위해 수립한 통합마스터플랜을 통해 달라진 지역의 경관과 변화한 모습을 살피면서 좋은 경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이에 통합마스터플랜의 수립과 실행과정 그리고 결과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경진 교수(서울대학교)의 ‘철원 철새 평화타운 조성 과정’, 우신구 교수(부산대학교)의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이석현 교수(중앙대학교)의 ‘파장초등학교 주변 안전마을 만들기’ 등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민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김해정 실장(서울주택도시공사), 서수정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민아 소장(건축사사무소 협동원) 등이 통합마스터플랜이 가진 성과와 한계를 함께 고민하였으며, 경관이 내포한 사회·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였다.



제4차 AURI 경관포럼 ‘지역의 경관관리, 주요 이슈와 전문가의 역할’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2월 10일(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제4차 AURI 경관포럼을 개최하였다.

올해 총 4회로 기획된 포럼의 마지막 행사로, ‘지역의 경관관리, 주요 이슈와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주제 아래 지역연구원 경관 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광역시, 광역도, 기초지자체 단위로 구분해 지역의 경관관리 현황과 주요 현안들을 살폈다. 먼저 정상혁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 대해 경관 차원에서의 접근법을 제안하였으며, 추용욱 연구위원(강원연구원)은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등 강원도의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의 필요성을 전하였다. 이 외에도 정수진 연구위원(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시의 경관관리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하였다.

한편 이상민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을 설명하였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국토경관 관련 다양한 여건 변화를 염두에 둔 추진전략을 전하며, 경관관리 소외지역 해소 등을 실천과제로 삼아 국내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신하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한국경관학회장)가 진행을 맡아 국토경관 정책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재생 토크콘서트 ‘당연하지 않은 도시재생’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2월 13일(금)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도시재생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단행본 <당연하지 않은 도시재생>의 출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동명의 주제로, 소멸도시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재생법」 제정 당시의 의도 등을 돌아보고자 마련하였다.

1부 당연하지 않은 제도 이야기에서는 서수정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도시재생법의 제정 의도와 실제’를, 김은희 센터장(건고실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이 ‘도시재생과 주민참여’를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법 제정 당시의 의도에 비추어 도시재생의 현상황을 진단하기 위한 논의를 펼쳤다. 2부 당연하지 않은 공공 이야기에서는 이재우 교

수(목원대학교)가 ‘김천시 도시재생사업 이야기’를, 윤주선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군산시 영화타운 마을재생 이야기’를 소개하며 실제 사업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 정책의 실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제1차 국비지원사업인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였으며, 이번에 출간한 단행본 <당연하지 않은 도시재생>은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살피고, 나아가 도시재생 정책 전반을 성찰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후원하는 '2019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가 지난 10월 10일(목)부터 13일(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경주시가 주최하는 2019 한옥문화박람회의 부대행사로 치러졌다.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전통 건축인 한옥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한옥공모전은 준공·계획·사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출품작(977점)이 접수된 가운데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준공 부문 3점, 계획 부문 18점, 사진 부문 34점 등 모두 55점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디자인과 시공품질 등 한옥 건축물의 종합적 완성도를 고려한 준공 부문 대상은 서울 은평한

옥마을 '월문가(주)건축사사무소자향헌 박상욱'가 차지하였다. '월문가'는 골목과 접한 창을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공간으로서의 한옥을 보였으며, 목재품질과 구조에 대한 높은 이해를 나타냈다. 도시마을 재생의 거점이 될 새로운 한옥을 위한 계획 부문 대상은 '서울재동초등학교 리모델링 계획안(홍익대학교 양은빈)'이 받았다. 이 계획안은 북촌의 맥락을 고려한 한옥의 크기와 높낮이를 통해 완성도 높은 복합문화시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옥의 공간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한 사진 부문은 '옛 추억(양광현)'이 대상을 거머쥐었다. 정읍에 위치한 김명관 고택의 마당과 차경, 빛을 적절히 활용하여 한옥 부재의 질감을 선명히 드러냈다.

한옥공모전은 전통문화인 한옥의 창조적 계승과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기회로서 한옥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7회 지자체 한옥 등 건축자산 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2월 12일(목)과 13일(금) 양일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7회 지자체 한옥 등 건축자산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우수 사례와 정책 확산을 통해 건축자산 활성화를 도모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문가 강의 및 우수건축자산 답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가 강의와 토론회로 구성된 12일에는 윤인석 교수(성균관대학교)의 '건축자산 보전·활용의 가치증진을 위한 방안'과 안인향 주무관(서울시청)의 '서울 특별시 건축자산 보전·활용 정책과 과제' 발표를 통해 건축자산의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정책사례를 짚어볼 수 있었다. 또 김상협 연구교수(명지대학교)의 '한옥기술개발 R&D 현황'과 김영민 교수(명지대학교)의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전통목구조)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해 보았다. 끝으로 이민경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지자체 건축자산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해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도왔다.

13일에는 체부동생활문화센터·상촌재·마포문화비축기지 등 서울에 위치한 주요 건축자산을 답사하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였다.



2019 auri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10월 16일(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19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내가 꿈꾸는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 되어 보기'를 진행하였다.

auri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대상 학생들이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직접 그들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 세종시 고운중학교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의 역할과 업무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관련 대학 전공과 학습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짝을 이루어 각자 꿈꾸는 건축물과 도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서로가 원하는 공간을 구체화하여 종이에 옮겨 그리는 과정을 통해 건축가·도시계획가·조경가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건축도시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의 폭넓은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